전주기상지청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2026. 9. 3.(목) 16:00 배포 2026. 9. 3.(목) 16:00

[2026년 여름철 전북특별자치도 기후특성]

전북, 올여름 역대 세 번째로 더웠다…장마 늦고 비도 적어

- 여름철 평균기온 25.6℃(역대 3위), 폭염일수 25.1일(5위), 열대야일수 18.3일(2위)
- 강수량 520.5 mm로 평년 대비 70.8% 수준(하위 11위)
- 블로킹 발달과 북태평양고기압 확장 지연의 영향으로 평년보다 늦은 장마철 시작, 7~8월 폭염과 기상가뭄 발생

□ 전주기상지청(지청장 신언성)은 2026년 여름철(6~8월) 전북특별자치도(전북*)의 기후 특성과 원인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 전북 평균값은 1991년 이후 연속적으로 존재하는 7개(전주,군산,부안,임실,정읍,남원,장수) 지점의 관측값 사용함

□ **[기온] 여름철 전북 평균기온**은 **25.6℃**로 평년보다 1.6℃ 높았고, 가장 더웠던 **2025년과 2024년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높았다**. 7월 중순부터 기온이 평년 대비 크게 올랐고 8월 상순과 하순에 고온이 지속되었다.

* 역대 순위는 기상관측망을 전국적으로 대폭 확충한 시기인 1973년부터 2026년까지 총 54년 중의 순위임

※ 여름철 평균기온 순위: (1위) 2025년 25.8℃, (2위) 2024년 25.8℃, **(3위) 2026년 25.6℃**

○ **(폭염)** 여름철 전북 **폭염일수**는 **25.1일**로 평년(11.6일)평년보다 **약 2.2배 많았다**(5위). 특히, **전주, 정읍**에서 **많이 발생**하였다.

※ 여름철 폭염일수 최다 순위: (1위) 2018년 34.9일, (2위) 2025년 30.7일, (3위) 1994년 28.9일

※ 2026년 여름철 지역별 폭염일수: 전주 39일, 정읍 38일, 완주 31일, 남원 30일, 순창 27일, 김제·부안 26일, 익산·고창 23일, 무주 21일, 임실 18일, 군산 15일, 진안 13일, 장수 10일

○ **(열대야) 열대야일수**는 **18.3일**로 평년(6.3일)보다 약 2.9배 많아 **역대 두 번째로 많았다. 7월과 8월에 열대야가 집중**되었고, 낮 동안 기온이

같은 값이 2개 이상 존재할 때는 최근값을 우선순위로 함(기후통계지침)

크게 오른 가운데, 고온다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밤사이 복사냉각을 약화시켜 기온이 떨어지지 못해 열대야 발생이 많았다. 특히, 남원은 관측 이래 열대야일수가 가장 많았다.

※ 여름철 열대야일수 최다 순위: (1위) 2024년 22.4일, **(2위) 2026년 18.3일**, (3위) 1994년 15.3일

※ 2026년 여름철 지역별 열대야일수: 전주 33일, 군산 27일, 김제 26일, 부안 24일, 익산·고창 23일, 정읍 21일, 남원 18일, 순창 15일, 완주 5일, 임실 4일, 장수 1일

□ **[강수량] 여름철 전북 강수일수**는 **31.4일**로 평년(39.5일)보다 8.1일 **적었고**(하위 9위), **강수량**은 **520.5㎜**로 **평년**(743.5㎜) **대비 70.8% 수준으로 적었다**(하위 11위).

○ **(장마철)** 북태평양고기압이 빠르게 확장하여 장마철이 평년보다 일찍 시작되고 일찍 종료되었던 작년과 달리, 올해 **장마시작**은 **블로킹 발달과 북태평양고기압 확장 지연 등의 영향**으로 남부지방은 6월 30일로 **평년**(6월 23일)**보다** 7일 **늦었다.** 7월 중순에 장맛비가 내린 후 북태평양고기압이 점차 확장하며 장마철이 종료되었는데, 남부지방은 7월 25일로 **평년**(7월 24일)**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장마철 동안 정체전선**이 남북으로 진동하며 지속적으로 장맛비가 내리기보다는 7월 상순에 태풍(제9호 '바비')의 영향으로 **빠르게 북한 지역으로 북상**하였다가 중순에 **주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형성**되며 **장마철 전북 강수량**(197.2㎜)은 **평년**(355.5㎜) **대비 55.7% 수준**으로 **적었고**, **강수일수**(12.7일)도 **평년**(17.9일)**보다 5.2일 적었다**(하위 8위, 10위).

※ 2026년 장마철 기간: (제주도) 6월 30일~7월 19일, (남부지방) 6월 30일~7월 25일, (중부지방) 7월 1일~7월 26일

※ 장마철 시종일은 제주, 남부, 중부로만 구분이 되고, 전북의 강수량과 강수일수는 남부 시종일 해당 권역 내 7개 지점(전주, 군산, 부안, 임실, 정읍, 남원, 장수)에 대해 적용해서 산출하였음

○ **(기상가뭄)** 6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발생했던 기상가뭄이 7~8월 남부지방으로 확대되며 전북 여름철 기상가뭄 발생일은 33.8일(12위*)이었다. 특히, 전북남동내륙(남원,순창,임실) 지역에서 기상가뭄 발생일이 많았다.

* 기상가뭄 발생일수의 역대 순위는 1974년부터 2026년까지의 순위임(기상가뭄은 6개월 누적강수량을 이용하여 정의하기 때문에, 1973년 이듬해인 1974년부터 순위를 산출함)

※ 최근 6개월(2026년 3월 1일~2026년 8월 31일) 전북 누적강수량은 평년의 81.2%이고, 지역별로는 평년의 59.4%(남원)~107.9%(군산) 분포를 보이고 있음

※ 지역별 기상가뭄발생일수: 순창 68일, 남원 65일, 임실 64일, 장수 59일, 무주 41일, 김제 36일, 부안 31일, 정읍 29일, 진안 28일, 전주 27일, 완주 16일, 고창 9일

□ 신언성 전주기상지청장은 “올여름 전북은 평년보다 높은 기온 속에 폭염과 열대야가 크게 늘었고,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어 기상가뭄까지 나타나는 등 극한적인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라며, “기후변화로 인해 앞으로도 이와 같은 극한기상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전주기상지청은 ‘폭염중대경보’, ‘열대야주의보’, ‘재난성호우 긴급재난문자’ 등 방재기상서비스를 통해 위험기상을 보다 신속하게 알리고, 도민들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기상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라고 밝혔다. 이어 “전북특별자치도와 시·군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지역별 기상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기상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역 방재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라고 강조했다.

담당 부서	전주기상지청	책임자	과 장 공종웅 (063-249-3220)
	기후서비스과	담당자	주무관 공수현 (063-249-3228)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